

美 알루미늄 관세 뚫는다… 알루코, 현지에 원스톱 생산기지

내년 3월 테네시주 공장 추가가동
GRT·AMA·HDAA 3개법인 입주
북미 산업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로
연간 15.6만t… 스마트팩토리 운영

국내 대표 알루미늄 기업 알루코 그룹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화 정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미국 내 투자공장의 추가 가동을 내년 3월로 앞당기는 등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품목관세 50%와 상호관세 15%를 부과한 가운데 현지 기업들의 '미국산' 알루미늄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알루미늄 압출제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20만 톤 규모로, 2033년까지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알루미늄 빌렛 등을 포함해 연간 480만 톤의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요국이다. 알루코 그룹은 친환경 알루미늄 압출재를 앞세워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



박도봉 알루코 회장(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로더 데일 카운티의 홀스 산업단지 내에서 맥 호터 주정부 부지사, 게인스 모리스 로더데일 카운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알루코

터리 케이스, 태양광 모듈, TV·생활가전, 커튼월, 건축자재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향후 5년 내 북미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알루코 그룹의 테네시주 홀스 복합단지에서는 내년 3월 전 공정 가동을 목표로 용해부터 압출·가공에 이르는 대형 알루미늄 생산 설비 반입과 설치가 진행 중이다. 약 10만 평 규모의 이

단지는 잭슨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부품 공장에 이은 두 번째 미국 생산 거점으로, 알루미늄 소재 및 부품 생산에 필요한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한다. 알루코 그룹 산하 그린리사이클 테크놀로지 아메리카(GRT), 알루미트리얼스 아메리카(AMA), 현대알루미늄 아메리카(HDAA) 등 3개 법인이 입주해 북미 공급망을 구축하며 한국·베

트남과 함께 삼각 축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알루코의 자회사인 AMA는 GRT의 친환경 빌렛을 기반으로 압출·피막·가공·조립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고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와 태양광 모듈 프레임, 자동차 부품 등을 미국 현지 생산 물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GRT는 인공지능(AI) 기반 알루미늄 재활

용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빌렛을 생산하는 주요 공장으로, 탄소 저감과 자원 순환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다. HDAA는 한국·베트남·대만에서 축적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초고층 커튼월과 창호재 등을 앞세워 북미 건축·건자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15만6000톤 규모의 AI 기반 무인 스마트팩토리로 운영되며 소재부터 조립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한 '원스톱' 생산기지를 목표로 한다. 알루코 그룹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에 따른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알루코 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창업이라는 각오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베트남·미국을 잇는 그룹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북미 산업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쿠팡, 美 집단소송에 국내 영업정지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파장

쿠팡Inc 주주, 美 증권법 근거로
법인·김법석 의장 등에 소송제기
공정위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주 소송과 소비자 소송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는 등 리스크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쿠팡이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법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관련 내용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 동안 탐지되

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도록 방치했다"며 "그 결과 규제 및 법적 조사 위험이 중대하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사업보고서상의 공표가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월 18일 이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했지만, 실제 공시는 지난 16일에 이뤄졌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에서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약 18% 하락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를 다루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달리, 미 증권법에 근거한 주주 집단소송이다.

이와 별도로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원고단 모집에 나선 상태.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최근까지 약 5년간 총 1039만 달러(약 153억8000만원)를

로비에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미 의회는 물론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 광범위했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IS

연초대비 83% 상승… 금값 사상최고

美 금리인하 기조, 달러 약세 부추겨
선물가격 트로이온스당 4387.30달러

국제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300달러를 웃돌며 고공행진 중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3분기부터 금 매입을 늘리면서 금 가격을 끌어올렸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21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4387.3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22.80달러(0.52%) 상승한 것으로, 1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2일 만에 다시 썼다. 금값은 11일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4300달러를 상회했다.

올해 초 온스당 2669달러였던 금 가격은 연초 대비 약 83.1% 급등했다. 올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의 대규모 관세 정책, 주요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됐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금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 3분기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직전 분기보다 28% 늘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지속하는 것은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위협받는 만큼 외환보유고 내에서 달러 자산의

의존도를 낮추고 준비 자산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 보유고를 가장 빠르게 늘리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금 매입을 지속했다. 지난 달 말 기준 인민은행의 금 보유고는 작년 말과 비교해 약 25톤 늘어 2100만톤을 기록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달러 약세를 부추기면서 금값 상승의 재료가 됐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금리 인하였지만,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빠르게 후퇴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 여전히 잔존, 당분간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산운용기업 XTB MEN의 밀라드 아자르 시장분석가는 "각국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과 견고한 ETF 매입은 금의 지속적인 수요와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감도 금 가격의 핵심지지 축으로 남아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

SK(주) 순차입금 전년 10.5조→8.4조 줄어

》1면 '계열사 100곳 정리...'서 계속

SK(주)의 3분기 말 별도 기준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약 10조5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부채비율은 86.3%에서 77.4%로 낮아졌다. 자본총계는 14조6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

으로 늘어 순차입금 의존도는 38.7%에서 28.8%로 떨어졌다.

계열사 축소와 재무지표 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리밸런싱 성과를 통해 반도체·AI·배터리 중심의 성장 전략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의 이번 리밸런싱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이 아니라, 반도체·AI·배터리 등 핵심 사업에 자원을 재배치하기 위한 구조적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해석된다"며 "계열사 수 축소와 비핵심 자산 정리를 통해 재무 부담을 낮춘 만큼, 향후에는 확보한 투자 여력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